

자궁경부무력증 산모의 양수에서 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를 이용한 유레아플라스마 감염의 진단의 의의

오경준, 김선민, 양혜진, 박찬욱, 박중신, 전종관, 윤보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Objectives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자궁경부무력증 산모에서 중합효소연쇄반응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을 이용한 양수내 유레아플라스마 감염 진단의 임상적 의의를 확인하고자 함이다.

Methods (연구 방법)

자궁경부무력증으로 진단받고 양수검사를 시행한 58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채취한 양수는 호기성 및 혐기성 세균과 생식기 마이코플라스마균 (*Ureaplasma* sp., *M. hominis*)에 대한 배양검사를 시행하였다. 배양검사 후 -70°C에서 보관된 양수에 대하여 urease gene 특이성 길잡이 (primer)를 이용하여 PCR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양수내 염증반응을 확인하기 위하여 matrix metalloproteinase-8 (MMP-8)을 측정하였다.

Results (결과)

(1) 유레아플라스마 감염의 빈도는 배양검사에서 5.2%, PCR검사에서 19.0%였으며, 배양검사나 PCR검사 중 하나 이상에서 확인된 경우는 22.4% 였다; (2) 배양검사 음성이나 PCR 양성인 환자는 배양검사 및 PCR 음성인 환자에 비하여 양수내 MMP-8 농도 및 백혈구 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각각 $p<.05$ 와 $p<.001$), 2주 이내의 자연분만의 빈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05$); (3) 2주 이내에 분만한 환자에서 배양검사 음성이나 PCR 양성인 군은 배양검사 및 PCR 음성인 군에 비하여 양막염 및 제대염의 빈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각각 $p<.05$); (4) 배양검사 양성군과 배양검사 음성이나 PCR 양성인 군 사이에는 양수내 염증 반응의 정도 및 태반염증, 임신 결과에 차이가 없었다.

Conclusions (결론)

(1) 양수 배양검사는 PCR검사로 확인된 다수의 유레아플라스마 양수내 감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2) 자궁경부무력증 산모에서 양수배양검사 음성이더라도 PCR검사서 유레아플라스마의 감염이 확인된 경우 양수 및 제대의 염증과 임박한 자연 조산의 위험인자였다.